

고양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과 그 가족을 품다

고양시는 2018년부터 국내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오픈·운영 중이다. 시 직영이라는 장점을 살려 지역발달센터가 갖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기초발달센터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나가고 있다.

글 이경현(고양소식 편집위원) 사진 장애인복지과



하이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인 가족들

2018년부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중

올해 6월 기준 고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인구는 41,432명으로 전체 고양시민 대비 3.9%를 차지한다. 이 중 10.1%가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7.8%, 자폐성 장애인 2.3%)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발달장애인이 고양시에 거주 중이다. 이는 행정관청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만 따진 것으로 실제 장애인이지만, 사회적 낙인 등 여러 이유로 굳이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우리 주위에 장애인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난 비율은 9.3% 정도로, 대부분이 분만 도중 의료사고나 질병,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사회·환경 및 후천적 요인에 의해 장애를 갖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장애는 개인이 책임져

야 할 문제가 아닌 사회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고양시는 2016년 고양시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18년부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다른 장애 유형의 경우 접근성의 제한이 없도록 외부적인 환경을 개선하면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자기주장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힘들다. 이에 발달장애인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문을 열게 되었다. 특히, 고양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통합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고양시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사례로, 장애인복지과 내의 조직으로 편성해 직영함으로써 대상자의 민감한 정보 수집을 통한 개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 전체

별 지원계획을 세우는 한편 실효성 있는 복지서비스의 연계가 가능해 긍정적 측면이 많다.

장애인 가족의 정서적 치유가 필요한 상황

물론 한편에서는 시 예산을 들여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지원해야 하느냐는 부정적 시선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지난달 장애인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한 '마음가드닝'이라는 마음 치유 프로그램은 장애인가족이라면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었다.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장애인가족인 것이 특권도 아닌데 충분히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비용을 100% 보조해야 하느냐고 하기도 한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장애인이 된 요인 중 약 91%가 사회·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이기에 사회가 이들을 책임지는 것은 타당하다. 특히, 장애인가족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어느 순간 '장애인가족'이 되었다. 가족 휴가를 가려고 해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못 가는 곳이 태반이고, 장애인 형제를 뒀다는 이유로 부모로부터 관심을 덜 받게 되고, 자녀가 장애인이 된 것이 마치 부모의 잘못인 양 바라보는 사회의 그릇된 편견에 시달리는 등 장애인가족으로서 겪는 스트레스도 상당하다. 실제로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단지 장애인의 부모라는 이유로 교사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항변하지 못하는) 자신의 자녀를 잘 봐달라는 마음으로 언제나 '을'의 입장이 되어 사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런 까닭에 그동안 장애인가족으로 살아오면서 받았던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 등으로 생긴 스트레

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에서 예산을 들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등교하지 않는 기간이 길었던 까닭에 장애학생과 부모 혹은 비장애인 형제들이 종일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가족들의 스트레스도 그만큼 늘어나 가족의 정서적 치유가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꾸준한 지원 필요

경기복지재단의 '고양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에 있어서 (1) 발달장애인 특화일자리 개발 및 확대 (2)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확대 (3) 발달장애인 직업적응 훈련시설 설치·운영 (4)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근로보조수당 지급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고, 건강 측면에서는 (1)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재활 바우처 (2) 발달장애인 스포츠 바우처 확대 (3) 발달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4) 발달장애인 조기개입 협력체계 구축 (5) 발달장애인 거점 병원 유치 (6) 발달장애인 행동발달증진센터 유치 등을 제시했다. 또 가족지원과 관련해서는 (1) 생애주기별 및 최종증장애를 위한 주간보호시설 지원 및 확충 (2) 안심팔찌 보급 (3) 생애주기별 가족교육과 가족심리상담 지원 강화 (4) 생애주기별 통합정보지원체계 마련 (5) 발달장애인 지원 활동지원사 역량강화 교육 (6) 발달장애인 365쉼터(일시보호시설) 유치 (7)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미래보장에 대해서도 여러 방안을 제시했는데, 앞으로 시는 본 보고서를 토대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방안을 꾸준히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마음가드닝에 참여한 장애인가족들